



## ‘작은거인’ 람 종료 직전 결승골

## ‘전차군단’ 12년만에 정상 도전

**독일, 터키에 3-2 역전승…결승 선착**

‘전차군단’ 독일이 터키를 물려세우고 2008 유럽축구선수권 대회(유로2008) 결승에 선착했다.

독일은 26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스위스 바젤 상크트 아ulpark에서 펼쳐진 터키와 유로2008 첫번째 준결승에서 2-2로 팽팽한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 종료 직전 터진 필리프 람의 천금같은 결승골로 3-2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이번까지 유로 무대 준결승을 7차례 치른 독일은 1988년에만 네덜란드에 준결승에 패했을 뿐 1972년과 1976년, 1980년, 1992년, 1996년에 이어 12년 만에 양리들로네컵에 도전하게 됐다. 독일은 1972년과 1980년, 1996년에 정상에 올랐고 1976년 체코슬로바키아에, 1992년에는 덴마크에 각각 결승전에서 패하며 준우승에 머물렀다.

독일은 리시아스페인의 또 다른 준결승 승자와 30일 오전 오스트리아 빈 에른스트하펠슈타디온에서 우승을 다퉐다.

독일은 포르투갈과 8강전에서 재미를 본 ‘4-2-3-1’ 포메이션을 그대로 들고 나왔다.

슈바인슈타이거의 대회 2호골.

한 골씩을 주고받은 채 들어간 후반에는 독일이 우세를 이어갔고 33분 결국 역전골을 성공시켰다. 럼이 왼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헤딩 머신’ 클로제가 문전 앞에서 머리로 밀어넣은 것. 하지만 포기할 줄 모르는 터키의 끈기는 여전했고 후반 41분 세미흐가 동점골을 넣으며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렸다. 세미흐는 사브리가 오른쪽 측면을 돌파한 뒤 밀어준 볼을 문전 앞에서 밀어넣었다.

기사회생한 터키가 다시 승부를 팽팽하게 만들었지만 9분 뒤 결국 선제골을 뽑아냈다.

전반 22분 터키는 오른쪽 측면 수비수 사브리 사리올루가 왼쪽 측면에서 밀어준 크로스를 세미흐가 골문 오른편에서 논스톱 오른발 터닝 슈팅으로 연

결한 것이 크로스바를 강타하며 머리를 감싸쥐었지만 9분 뒤 결국 선제골을 뽑아냈다.

독일이 동점골을 뽑기까지는 4분 밖에 걸리지 않았고 주인공은 ‘8강전의 영웅’ 슈바인슈타이거였다. 전반 26분 포돌스키가 왼쪽 측면을 단독 돌파한 뒤 엔드라인 부근에서 골문 앞으로 밀어줬고, 이를 골문으로 쇄도하던 슈바인슈타이거가 오른발로 살짝 방향만 바꿔놓으며 골망을 훔들었다. 포르투갈과 준준결승에서 1골2도움으로 맹활약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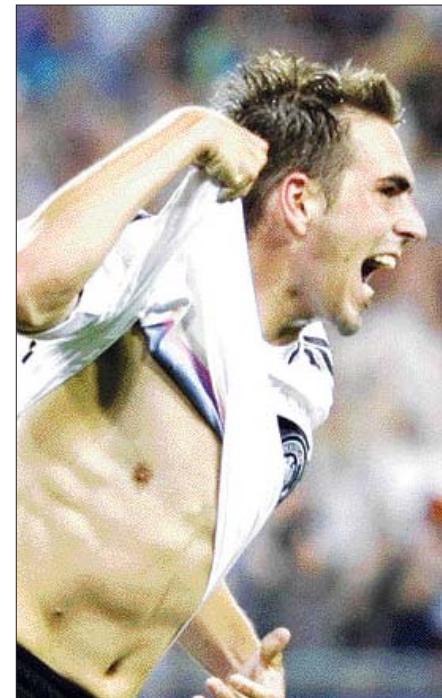
시계가 후반 45분을 가리킬 때 람은 측면으로 볼을 치고 들어가다 미드필드 가운데서 있던 토마스 헤헬스베르거에게 볼을 건넨 뒤 아크 왼쪽 터키 수비수 뒤로 빠져 들어갔고 헤헬스베르거가 찔러준 에리한 슬루페스를 이어받았다. 한 두 발짝 더 치고 들어간 람은 터키 수문장 뒤슈티 레즈베르가 달려나오자 왼쪽 옆구리 빙틀으로 오른발로 살짝 갑아 슈팅을 날렸고 볼은 골 그물을 사정없이 휘감았다.

터키의 끈끈한 둘째를 잠재우는 동시에 독일의 6번째 유로 무대 결승 진출을 알리는 시원스런 득점포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 작은 키 불구 강한 체력·빠른 돌파력 돋보여



전반 45분 왼쪽 측면에서 오버래핑을 시도했다. 미드필드 중앙에 있던 토마스 헤헬스베르거에게 패스를 내준 뒤 아크 왼편 터키 수비수 뒤로 과고 들어갔고, 헤헬스베르거가 찔러준 슬루페스를 이어받아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훔들었다. 키는 작지만 빠른 발과 에리한 크로스, 돌파력으로 승부하는 람의 진가가 제대로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특히 지치지 않는 체력은 람을 단연 돋보이게 하는 강력한 무기다. 2년 전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람은 조별리그부터 16강전, 8강전(연장승부), 4강전(연장승부)에 3~4위 결정전까지 7경기를 모두 풀타임으로 소화하며 무려 690분을 뛴 람은 이번 대회에서도 이날까지 5경기에서 모두 선발 출전해 471분을 뛰는 강철체력을 선보이고 있다.

람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날 득점은 내가 축구를 하면서 넣은 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골이었다. 골을 넣고 너무 감동한 나머지 내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다”고 감격해 했다.

꽃이 놓여 역전골을 뽑어냈다.

후반 41분 독일이 동점골을 내주자 이번에는 직접 해결사로 나섰다. 람은 경기 종료

26일 오전(한국시간) 스위스 바젤의 상크트 아ulpark에서 펼쳐진 2008 유럽축구선수권 대회(유로2008) 독일과 터키의 준결승에서 독일 선수들이 3-2로 결승행을 확정한 뒤 승리를 기록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축구 ‘행운의 선택’ 기대

한국축구의 7회 연속(총 8회) 월드컵 본선 진출을 가능해 볼 수 있는 운명의 시기다.

10개국이 45강의 출전 티켓을 놓고 힘겨루기를 할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조 추첨식이 27일 오후 6시(이하 한국시간) 말레이시아 아·주알라룸푸르의 아시아축구연맹(AFC) 본부에서 열린다.

조 추첨은 2006 독일 월드컵 성적을 바탕으로 신출한 행운에 따라 10개국을 4개 티켓으로 나눈 뒤 진행된다. 행운은 1위 호주, 2위 한국, 3위 이란, 공동 4위 사우디와 일본은 먼저 추첨을 해 한 팀은 2번 포트에 남고, 다른 팀은 3번 포트로 들어간다.

최종예선 진출국 중 중동 팀은 이란, 사우디, 바레인, UAE, 카타르 등 5개국이다.

### 월드컵 애 최종 예선 조 추첨

### 오늘 오후 6시 말레이시아서

10위 카타르다.

랭킹에 따라 1번 포트(1, 2위)의 호주와 한국을 비롯해 2번(3, 4위), 3번(5, 6위), 4번(7~10위) 포트로 각각 팀이 갈린다. 공동 4위인 사우디와 일본은 먼저 추첨을 해 한 팀은 2번 포트에 남고, 다른 팀은 3번 포트로 들어간다.

최종예선은 오는 9월 6일부터 내년 6월 17일까지 훌랜드에 위치한 텁타운에서 개최된다. 행운은 1위 호주와 한국은 9월 10일 원정경기로 최종예선을 시작한다.

5개국 모두 한국과 격돌할 가능성이 있는 2~4번 포트의 8개국 안에 들어 있다.

허정무호는 모두 중등팀과 한 조에 속하는 최악의 경우를 맞이할 수도 있다. 공동 4위 일본이 2번 포트에 남으면 이란, 사우디(또는 바레인), UAE, 카타르와 한 조가 될 수 있다. 일본이 3번 포트로 들어갈 경우에도 이란(또는 사우디), 바레인, UAE, 카타르와 최종예선을 치를 가능성 있다.

최종예선은 오는 9월 6일부터 내년 6월 17일까지 훌랜드에 위치한 텁타운에서 개최된다. 행운은 1위 호주와 한국은 9월 10일 원정경기로 최종예선을 시작한다.

## 한국양궁 대역전…금 확보

### 윤옥희 7점차 뒤집고 결승행

### 팀동료 박성현과 우승 다툼

### 양궁 월드컵 여자 개인전

세계 최강 한국 여자양궁이 7점 열세를 뒤집는 대역전극을 벌이며 국제대회 결승 대결을 독차지했다.

윤옥희(23·예천군청)는 26일(이하 한국시간) 프랑스 보에에서 열린 2008 양궁 4차 월드컵 여자부 개인전 준결승에서 장주안주안(27·중국)을 107-105(120점 만점)로 제치고 결승에 올라 28일 밤 박성현(25·전북도청)과 메달 색깔을 놓고 겨룬다.

대역전극이었다. 4엔드에 걸쳐 3발씩 12

발을 쏘는 가운데 윤옥희는 1, 2엔드 대결 결과 50-57로 7점이나 뒤쳤다.

정상급 선수간 대결에서 1, 2엔드 7점차는 도저히 뒤집기 어려운 점수.

하지만 3엔드 들어 장주안주안이 방심한 듯 25점을 그친 반면 윤옥희는 29점을 쏘며 4점을 만회, 79-82로 뒤집었다.

흐름을 탄 윤옥희가 4엔드 들어서도 기세를 높추지 않고 28점을 쏘으나 장주안주안이 23점을 그쳤고 전광판에 표시된 점수는 107-105로 윤옥희가 2점이나 앞서있었다.

박성현도 4강 대결에서 자오 링(27·중국)에게 1엔드 3점(26-29)이나 뒤쳤지만 4엔드 3발 모두 10점에 명중시키는 집중력을 발휘한 끝에 112-109, 3점차 역전승을 거두고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 페더러 잔디코트 61연승

로저 페더러(1위·스위스)가 월드컵테니스대회 남자단식 6년 연속 우승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했다.

페더러는 26일(한국시간) 영국 월드컵에서 열린 대회 3일째 남자단식 2회전에서 로빈 소데링(41위·스웨덴)을 3-0(6-3 6-4 7-6<3>)으로 물리치고 32강에 진출했다.

최근 잔디코트 61연승 행진을 이어간 페더러는 마크 지켈(53위·프랑스)과 16강 진출을 다二胎게 됐다.

준결승에서 만날 것이 유력했던 노박 조코비치(3위·세르비아)가 이날 마리트 사핀(75위·러시아)에 져 탈락하는 바람에 페더러의 연승은 좀처럼 깨기 힘들 전망이다.

반면 여자 세계랭킹 1위 아닌 이바노비치(세르비아)는 고전 끝에 힘겹게 3회전에 올랐다.